

한화그룹, 대우건설 인수 의사 없다!

CA 작성 관련 보도 전면부인 ... M&A 기업자료 검토는 통상업무일 뿐

한화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.

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9월9일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“전혀 사실이 아니며 인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”고 말했다.

또 한화그룹의 M&A 실무팀이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와 비밀유지동의서(CA)를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“실무팀은 수시로 M&A 매물로 나온 기업자료를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한 것”이라고 해명했다.

동의서를 작성하고 대우건설 관련 참고자료를 받아봤다고 해서 인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며 실무팀은 대부분의 M&A 대상 기업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덧붙여 인수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.

한화그룹 관계자는 “2009년은 내실을 다지기에 주력하자는 것이 그룹의 내부방침”이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9/09>